

# 가족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hich factors were related to the decision making of family vacation?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洪成姬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金純美

Kei-Myung University  
Dept. of Home Management  
Associate Prof: Sung Hee H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nsumer Sciences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fessor : Soon-Mi Kim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 II. 가족휴가 의사결정 및 관련변수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cision making of family vacation as a active leisure. The sample in this study consisted of 1,616 Korean married couples and household head had a salaried job. Statistics employ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porbit and tobit analysi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unearned household income, the number of formal vacation types had positive effects on whether the family decide their vacations or not, while car ownership had negative effect on it. Second, the wife's satisfaction of economic status, household earned income, total household expenditure-to-total household income ratio, and car ownership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ays of family vacations. Third, husband's and wife's education attainment, household earned income, total household expenditure-to-total household income ratio, and living region were important variables for the family vacations'

expenditures.

## I. 문제의 제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개인의 노동시간 감소와 함께 여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특히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가져왔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GNP의 증가와 이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개인 및 가족생활, 직업선택, 소비생활 등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가를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70년대이후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0시간 이상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여가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1985년의 주당 26.8%를 차지했던 여가시간은 1996년에 30.2%, 2001년대에는 31.1%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개발연구원, 1988). 이처럼 근로시간의 감소는 시간자원의 배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여가시간을 증대시켰으며 여가시간에 행하는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가시간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여가에 대한 가치 및 태도로서, 과거에는 소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사치재로 인식되었던 여가가 지금은 개인이나 가족생활의 일부를 이루는 필수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여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은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여가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외숙 등, 1992)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사실(권미화, 1994에서 재인용) 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인이 직장을 선택할 때 고용조건외의 하나로 휴가를 고려하고 고용주측에서도 휴가를 고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간주하는 것(Lounsbury 등, 1985)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현상은 개인 및 가족의 휴가비지출에도 반영되었는데,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지출액 중 교양오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의 3.3%에서 1989년에 4.7%, 1993년에는 5.1%로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 여가활동의 하나로 간주되는 오락비지출이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전체소비지출의 5.9%인 1,379달러를 차지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ich, 1994).

한편 현대사회의 가족은 다양한 여가집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다.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가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개발시키며,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여가활동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원간의 이해와 신뢰감의 배경으로 작용하여 가족결속의 근원이 된다. 실제로 많은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동기도 주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의 화목과 발전을 위한 것(Rubenstein, 1980 ; 홍성희, 1996)으로서, 여가집단으로서의 가족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휴가활동은 주로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 휴가를 제안하고 결정하는 단계 및 경험하는 과정에서 가족원 모두가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Klausner, 1968). 뿐만 아니라 가족휴가는 배우자 및 자녀와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고 가족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Rubenstein, 1980에서 재인용). 이처럼 가족휴가활동이 갖는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김진탁, 1993 ; 신정화 등, 1993)는 주로 개인의 휴가활동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휴가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족단위의 휴가의사결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장병권, 1987 ; 안중수 등, 1993)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휴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의 휴가의사결정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가족휴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요인과 가족원들이 함께 한 휴가일수와 휴가비용에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과 가족이 근로 시간 및 휴가시간을 배분하거나 휴가활동에 따른 금전자원을 배분할 때 지침이 되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여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기업 및 사회단체, 시설에 개인 및 가족의 휴가활동 특성에 관한 정보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족단위의 휴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여가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 가족휴가 의사결정 및 관련 변수

### 1. 가족휴가 의사결정

가족의 휴가행동은 휴가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단위의 행동과 이에 선행되는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는 행동이다. 장병권(1987)에 의하면, 휴가의사결정은 휴가를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의 기본적인 결정에서부터 하위결정요소인 휴가일수, 비용, 목적지, 교통수단 선정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 때 휴가자는 대안을 평가하여 최종결정을 하게 되며, 휴가참여, 휴가참여에 대한 평가를 순서대로 진행시키게 된다. 또 Wahlers 등(1976)에 의하면 휴가의사결정은 일정한 단계에 따라 연속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휴가욕구 출현이 첫 단계이며, 이후 대안의 선정·평가·선택, 그리고 휴가참여 및 평가의 과정이 뒤따르게 되고, 휴가경험은 재경험에 영향을 주는 피이드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Francken(1984) 또한 가족휴가행동을 가족이 휴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휴가를 제안하는 최초의 문제인식 단계에서부터 정보탐색단계, 공동의사결정단계, 휴가참여단계를 거쳐 참여후 만족·불만족 등의 평가단계에 이르는 의사결정과정으로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휴가행동은 가족원들이 휴가참여를 결정했을 때 이와 관련된 여러 하위요인을 평가, 선택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휴가 의사결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앞서 강조된 의사결정의 과정과 연속성에 관한 연구외에도, 의사결정의 전단계 또는 특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휴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부의 역할구조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유형을 탐색한 Davis 등(1974)은 가족휴가가 가족원 중 한사람의 일방적 선택보다는 공동적 의사결정에 의해 선택되는 비율이 높으며, Nickols 등(1988)도 가족휴가에 대한 의사결정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부공동형이 66%로 가장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휴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부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한 Filiatrault 등(1980)은 휴가시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남편지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한편 안종수 등(1993)은 휴가비용, 숙박형태, 자녀동반 등에 있어서는 부부의 공동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휴가시기와 기간, 휴가비, 교통수단 등에 있어서는 남편지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면서, 결정속성에 따라 의사결정유형에 반영된 부부의 역할구조가 다른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휴가활동을 선택하는 단계와 휴가동기에 대한 연구도 소수 이루어졌는데, Rubenstein(1980)은 휴가동기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긴장완화, 지적·정신적 풍요, 가족 및 친지와의 시간 갖기, 새로운 경험, 개인적 문제 해결, 일상에서의 탈피 등의 동기에서 휴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Wahlers 등(1985)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휴가를 선택하는 이유, 즉 휴가동기를 개인이 여가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자극에 대한 욕구와 선호로 보았다. 즉 처음 경험하는 휴가는 새로움과 불확실성의 수준이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자극의 수준도 높을 것이며 과거에 경험했던 휴가를 반복하여 갖는다면 자극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개인의 실제 자극수준이 적정 자극수준보다 낮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 싫증을 내고 휴가를 통해 더 많은 자극을 찾고자 할 것이고, 반대로 실제 자극수준이 적정 자극수준보다 높다면 과다한 자극을 완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개인이 과거에 경험한 자극의 수준과 휴

가 선호패턴을 검토한 결과 근소하기는 하나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과 회피하는 사람간에 선호하는 휴가 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극추구자들은 독특하고 색다르며 모험적인 것으로 인식된 휴가를 선호하였으며, 자극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익숙하고 계획적인 형태와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휴가를 더 선호하였다. 따라서 개인 및 가족의 휴가동기가 선호하는 휴가활동의 선택과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Lounsbury 등(1985)은 가족휴가 의사결정의 마지막 단계인 휴가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휴가를 일에서 떠나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로 보고 직업관련변수와 여가관련변수, 인구학적변수가 휴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휴가만족도를 예측해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휴가관련변수 중 '휴식 및 여가에 대한 만족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휴가를 통해 개인적인 계획과 감정, 선호하는 여가방식 등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각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가족휴가의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그 개념 및 부분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 2. 관련변수의 고찰

### (1)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

Francken(1984)은 가족휴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통계적 요인, 개인요인, 가구요인, 개인과 가구요인간의 상호작용 등의 네가지 요인을 들었는데, 첫째, 인구통계적 요인으로 연령, 수입, 직업, 학력, 가족생활주기, 가족규모, 사회계층, 저축 및 자산정도가 영향을 미치며, 둘째, 개인요인으로서 가치 및 요구, 태도, 기대, 경험 등이 휴가결정에 작용한다. 또 셋째, 가구요인으로 가족의 라이프스타일과 의사결정 스타일, 역할과 권력구조 등이 영향을 미치며, 넷째, 개인과 가구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의사결정, 협상, 설득, 대안에 대한 만족기대가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

들이 실제로 휴가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실증되었으나, 전반적인 개념구조는 휴가활동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중수 등(1993)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휴가제안 및 휴가기간, 휴가비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유형을 분석한 결과, 휴가제안단계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가족생활주기의 초기단계에 있는 젊은 부부는 공동으로 제안하나 후기로 갈수록 남편과 자녀가 제안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휴가기간 및 휴가비용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awson(1991)은 가족생활주기와 휴가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각 단계마다 휴가의 형태와 휴가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휴가제안, 휴가기간 및 휴가비용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선호하는 휴가활동 및 참여하는 휴가활동에 대한 가족원의 욕구와 자원이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연령에 따라서도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를 위한 자원 등에 차이가 있다.

또 장병권(1987)의 연구에서는 가족원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과 가족여행일수, 여행비용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연령과 가족여행일수 및 비용의 관계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교육수준, 소득과 여행일수 및 비용은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여행일수와 여행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ounsbury 등(1985)의 휴가만족도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18세 이하의 자녀유무 등의 인구학적 변수 중 교육수준만이 휴가만족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휴가만족도가 낮았으며, 이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휴가에서 다양한 경험을 원하거나 휴가상황에 대해 더 비판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김외숙 등(1993)은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비용과 시간장애 이외에 개인적 장애가 많다고 하였다. 개인적 장애란 신체적 피로 및 심리적 여유 부족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인적 장애는 여가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여가장애로 나타났다. 또,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5)의 국민여가생활실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로 시간 및 돈의 부족 다음으로 몸의 피로가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개인이 인지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여가 및 휴가활동을 위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김진탁(1993)은 주말과 휴가를 통한 숙박여행시 자가용 이용율이 대중교통수단 이용율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사람들이 편리성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김광득(1994)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이르면 승용차 보급의 증대로 장거리 숙박여행시대를 가능케 하는 이동사회로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견해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여부가 가족휴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여가선택행동을 설명해 주는 상황적 가설에 의하면 사회적 환경과 이로부터 제공되는 기회가 개인의 여가활동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사회의 여가시설과 여가공간과 같은 환경적 여건이 여가활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김의숙 등, 1992). 그러므로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화 정도가 휴가활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신정화 등(1993)은 거주지역규모별 휴가의 동기와 역할에 대한 조사에서, 대도시 거주자는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휴식 및 휴양의 순이었으나, 중소도시 거주자는 삶의 활력소, 휴식 및 휴양,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 새로운 경험, 전문확대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고, 농어촌 거주자는 가족친지의 유대강화가 가장 높았고 전문확대, 새로운 경험의 순으로 제시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할 때, 연구결과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교육수준, 건강상태의 인식, 가족수 및 자녀수, 가족생활주기, 거주지역, 자동차 소유여부, 소득, 자산상

태 및 지출구조 등의 개인 및 가구관련요인이 가족의 휴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직업관련변수

여가행동이론 중 많은 이론들이 여가와 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보상이론과 과잉여가가설을 들 수 있다. 보상이론에 의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일에 수반되는 억압과 좌절, 긴장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가활동을 통해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여가활동이 일과 직업에 대한 보상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Roberts, 1970). 그러나 일에 필적되는 활동을 여가시간에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과잉여가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과잉여가가설은 개인이 선택하는 여가가 직업과 유사하다는 개념하에 고무적이고 신나는 일을 하는 근로자는 열광적이고 자극적인 여가행동을 할 것이고, 일에서 소외된 근로자는 여가시간에도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Parker, 1971). 실제로 Parker(1971)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가도 즐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여가를 지루하게 보내는 경향이 있었으며, Burdge(1969)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종사자가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 하위직 종사자들은 TV 시청이나 음주와 같은 소극적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음을 보여 주었다.

Lounsbury 등(1985)은 휴가가 일반적으로 일에서 떠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휴가에 대한 만족이 직업관련변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직업만족도와 직업몰입도, 직업역할갈등, 직업역할 모호성, 직업에 소모되는 신체적 노력 등을 휴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직업관련변수는 휴가만족도와 유의적 관련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휴가가 과거와 같이 부정적인 작업경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Klausner(1968)의 연구에서도 철강업 종사자의 작업동기와 만족은 연장된 휴가에 의해 큰 영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ubenstein, 1980 에서 재 인용). 그러나 Maslach(1979)에 의하면 직업관련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는 긴 휴가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Rubenstein(1980)도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휴가는 복지를 위한 필수재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직업관련변수가 휴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휴가는 휴식과 긴장완화,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꺼이 직업으로 복귀하게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대되며(Rubenstein, 1980), 특히 봉급생활자의 휴가는 개인의 선택보다는 직장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개인의 근무년수와 근무시간, 허용휴가일수, 직장만족도 등의 직업관련변수는 이들의 가족휴가결정과 휴가 일수, 휴가비용 등에 직접, 간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가족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가족휴가 의사결정 = f(개인 및 가구관련 요인, 직업관련 요인)

선행연구 및 관련변수에 기초하여 종속변수인 가족휴가 의사결정에는 가족휴가의 결정여부, 휴가일수 및 휴가비용이 선정되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관련 요인으로 남편의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인식, 부인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인식, 경제상태 인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가계근로소득 및 가계비근로소득,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 자녀유무, 가족수, 부모동거여부, 자동차소유여부, 거주지역 등을 포함시켰다. 이때, 자녀유무는 표본가구중 유자녀가구의 자녀연령을 6세, 7-18세, 19세 이상의 3집단으로 구분한 후 가변수화하였다. 자녀연령기준에 있어서 초등교육기와 중고등교육기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정규교육기간과 방학기간이 유사하므로 가족휴가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유사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직업관련 요인으로는 남편의 직장만족도, 근무년수, 근무시간, 공식휴가 종류 및 부인의 취업여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2. 연구방법

#####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3년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조사대상으로 한 이 자료는 추출확률과 가중치를 고려한 다단계 표본추출확률방법에 의해 수집된 8,236 가구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련 변수와 직업관련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전체 자료중 3,519 부부가족가구를 기초 표본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중 직장의 근무규정에 따라 휴가가 규정되는 봉급생활자 1,616 부부가족가구를 연구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봉급생활자의 휴가가 개인의 선택보다는 직장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므로 직업관련 변수가 가족휴가여부와 일수, 비용 등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정된 봉급생활자 가구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우선 조사대상 가구 중 휴가집단은 820가구로 절반정도를 차지하였으며,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는 55.8%, 7-18세사이의 자녀를 둔 가구는 40.6%,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16.0%였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가족은 8.7%,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3%,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58.5%,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12.6%를 나타냈다.

한편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은 각각 12.29년, 11.18년으로 고졸수준이었으며, 부인의 평균연령은 약 35세였다. 남편과 부인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보통보다 약간 더 건강한 상태로 인식하였으나 가족관계에 대한 부인의 인식은 만족한 반면,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b>종속변수</b>	
가족휴가 결정	1=휴가집단                      0=비휴가집단
가족휴가일수	지난 1년간 가족들과 사용한 휴가일수
가족휴가비용	지난 1년간 가족들과 휴가기간 동안 사용한 지출액
<b>개인 및 가구관련 요인</b>	
남편 교육수준	교육년수
남편의 건강상태 인식	1=매우 부정적              3=보통              5=매우 긍정적
부인 연령	
부인 교육수준	교육년수
부인의 건강상태 인식	1=매우 부정적              3=보통              5=매우 긍정적
부인의 경제 인식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부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가계근로소득	급여소득+상여금+자영소득+부업소득(만원/년)
가계비근로소득	자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년)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	가계총지출/(가계근로소득+가계비근로소득)
자녀유무: 6세이하	1=해당                      0=비해당
7-18세	1=해당                      0=비해당
19세이상	1=해당                      0=비해당
가족수	전체 동거가족원수
부모동거여부	1=동거                      0=별거
자동차 소유여부	1=유                          0=무
거주지역	1=대도시                      0=기타
<b>직업관련 요인</b>	
남편의 직업만족	수입만족+ 직업안정성 만족+ 근무시간 만족+ 업무내용 만족+ 근무환경 만족+ 직업장래성 만족
: 수입에 대한 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 직업안정성에 대한 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 직업장래성에 대한 만족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남편의 근무년수	취업년수
남편의 근무시간	(규정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주
남편의 공식휴가 종류	연차, 월차, 정식휴가(여름휴가), 특별휴가중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휴가의 종류수
부인의 취업여부	1=취업                          0=비취업

조사대상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는 봉급생활자 가구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1,716만원이었으며,

전체 가구중 비근로소득을 갖는 가구는 692가구로서 연평균 567만원의 비근로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표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N=1,616)

범주변수	구 분	빈 도 (%)	범주변수	구 분	빈 도 (%)		
가족휴가	휴가집단	820 (50.7)	자 동 차	유	533 (33.0)		
결 정	비휴가집단	796 (49.3)	소유여부	무	1,083 (67.0)		
자녀유무	6세이하	901 (55.8)	거주지역	대도시	945 (58.5)		
	7-18세	656 (40.6)		기타	671 (41.5)		
	19세이상	259 (16.0)					
부모동거	동거	140 ( 8.7)	부인취업	취업	203 (12.6)		
여 부	별거	1,476 (91.3)	여 부	비취업	1,413 (87.4)		
연속변수		빈 도	25%	50%	75%	Mean	S.D.
남편 교육수준(년)		1,616	12	12	14	12.29	2.48
남편의 건강상태인식(점)		1,616	3	3	4	3.47	0.93
주부연령(세)		1,616	29	32	39	34.84	8.55
부인 교육수준(년)		1,616	9	12	12	11.18	2.74
부인의 건강상태인식(점)		1,614	3	3	4	3.40	0.97
부인의 경제인식(점)		1,616	2	3	3	2.72	0.82
부인의 가족관계만족도(점)		1,615	4	4	5	4.01	0.79
가계근로소득(만원/년)		1,611	1,208	1,560	2,040	1,715.68	738.02
가계비근로소득(만원/년)		692	150	400	720	567.28	615.70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		1,616	0.32	0.45	0.62	0.50	0.27
가족수(명)		1,616	3	4	4	3.93	0.96
남편의 직업만족도(점)		1,606	16	18	21	18.01	4.07
: 수입 만족(점)		1,611	2	3	3	2.60	0.87
: 직업안정성 만족(점)		1,610	3	3	4	3.22	1.03
: 근무시간 만족(점)		1,608	2	3	4	3.02	1.01
: 업무내용 만족(점)		1,608	3	3	4	3.09	0.91
: 근무환경 만족(점)		1,608	2	3	4	3.07	0.96
: 장래성 만족(점)		1,609	2	3	4	3.02	1.02
남편의 근무년수(년)		1,614	3	6	13	8.86	7.60
남편의 근무시간(시간)		979	53	60	70	62.64	15.26
남편의 공식휴가 종류(수)		1,616	1	2	3	2.23	1.20
가족휴가 일수(일)		820	3	4	5	4.75	3.99
가족휴가 비용(만원)		815	10	20	30	22.46	15.47

\* 무응답과 중복응답으로 인해 빈도의 차이가 있음

났다. 전체 가구중 하위 25%는 1,208만원의 근로소득과 150만원의 비근로소득, 50%는 1,560만원의 근로소득과 400만원의 비근로소득, 상위 25%는 2,040만원의 근로소득과 720만원의 비근로소득을 나타내 근로소득보다 비근로소득의 집단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 봉급생활자 가구의 총지출 대 총소

득의 비율은 0.50으로 총소득 중 절반을 지출하였고, 하위 25%는 총소득 중 62%를 지출하는 반면 상위 25%는 32%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의 지출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직업특성을 보면 직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18.01점으로 보통수준의 만족을 보였다. 그



리나 직업특성 중 수입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였고, 직업안정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근무시간, 업무내용, 근무환경 및 장래성 등 기타 특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의 만족을 나타냈다. 또한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휴가의 수를 살펴 보면, 평균 2.23가지였으며, 휴가집단이 사용한 가족휴가일수는 약 5일, 그리고 가족휴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22.46만원이었다.

## (2) 분석방법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가족의 휴가결정은 이항변수이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Pr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가족의 휴가일수와 휴가비용 분석에는 Tobit 분석을 적용하였는데, 이 때 Tobit 분석을 실시한 것은 휴가를 가지 않은 가구를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Probit 분석에 앞서 연구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1. 가족휴가집단과 비휴가집단의 일반적 특성 분석

조사대상 가구를 휴가집단과 비휴가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개인 및 가족 요인과 직업관련 요인에 따른 특성은 <표 3>과 같다. 개인 및 가구관련 요인을 살펴 보면,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은 휴가집단의 경우가 비휴가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인 연령은 휴가집단이 비휴가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남편 및 부인의 건강상태는 비휴가집단에 비해 휴가집단이 이 더 건강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과 휴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인의 경제상태 및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은 휴가집단이 비휴가집단 보다 만족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휴가결정의 차이를 보면, 휴가집단의 가계근로소득 및 가계비근로소득이

비휴가집단에 비해 모두 높았으나 총지출 대 총소득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연령별 자녀유무에 따른 휴가결정의 차이에 있어서는 6세이하의 자녀를 갖는 휴가집단이 전체 조사대상의 31.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7-18세 사이의 자녀를 둔 가구중 휴가집단은 전체가구의 20.85%를 나타낸 반면, 비휴가집단은 19.74%로 나타나 학령기의 자녀를 두는 가구는 휴가에 대해 유사한 비율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중 휴가를 결정한 가구는 전체가구중 3.8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어릴수록 가족의 휴가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자녀의 학업수행으로 인한 제약이 적어 휴가를 갖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족수에 있어서는 휴가집단보다 비휴가집단의 가족수가 많았으며,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에 휴가를 결정한 가구는 전체가구의 47.28%였다.

직업관련 요인에 있어서는 휴가집단의 남편의 직업만족도가 비휴가집단에 비해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수입,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는 휴가집단과 비휴가집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업안정성, 업무내용 및 장래성에 대한 만족은 휴가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 휴가집단의 공식휴가종류는 2.45가지로 비휴가집단보다 많았다.

### 2. 가족휴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휴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 중에서는 가계비근로소득과 자동차 소유여부가 가족휴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비근로소득이 적을수록 가족휴가를 가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는 앞의 휴가집단과 비휴가집단의 비교결과에서 휴가집단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가 가장 많았고,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가장 적었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비근로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가족생활주기 중 초기단계에 속하는 신흥가족으로서 휴가에 대한 욕구가 크거나 동거하는 가족수가 적기 때문에 가족휴가가 보편

〈표 3〉 가족휴가가구집단과 비휴가가구집단의 특성

(N=1,616)

범주변수	휴가집단(N=820)	비휴가집단(N=796)	$\chi^2$
6세이하 자녀 : 유 무	512 (31.68) 308 (19.06)	389 (24.07) 407 (25.19)	30.15 ***
7-18세 자녀 : 유 무	337 (20.85) 483 (29.89)	319 (19.74) 477 (29.52)	0.18
19세이상 자녀 : 유 무	62 ( 3.84) 758 (46.91)	197 (12.19) 599 (37.07)	88.66 ***
부모동거여부 : 동거 별거	56 ( 3.47) 764 (47.28)	84 ( 5.20) 712 (44.06)	7.08 **
자동차소유여부 : 유 무	360 (22.28) 460 (28.47)	173 (10.71) 623 (38.55)	89.80 ***
거주지역 : 대도시 기타	479 (29.64) 341 (21.10)	466 (28.84) 330 (20.42)	0.00
부인취업여부 : 취업 비취업	96 ( 5.94) 724 (44.80)	107 ( 6.62) 689 (42.64)	1.11
연속변수	휴가집단(N=820)	비휴가집단(N=796)	t-test
남편 교육수준(년)	12.80 ( 2.10)	11.77 ( 2.72)	-8.51 ***
남편의 건강상태인식(점)	3.56 ( 0.87)	3.39 ( 0.98)	-3.78 ***
부인연령(세)	33.20 ( 7.05)	36.52 ( 9.58)	-10.88 ***
부인 교육수준(년)	11.88 ( 2.38)	10.45 ( 2.90)	7.94 ***
부인의 건강상태인식(점)	3.46 ( 0.95)	3.34 ( 0.98)	-2.61 **
부인의 경제인식(점)	2.77 ( 0.79)	2.67 ( 0.84)	-2.56 *
부인의 가족관계만족도(점)	4.08 ( 0.77)	3.94 ( 0.81)	-3.73 ***
가계근로소득(만원/년)	1,761.80 (712.71)	1,667.98 (760.82)	-2.56 *
가계비근로소득(만원/년)	621.69 (642.93)	495.77 (571.16)	-2.68 **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	0.49 ( 0.26)	0.52 ( 0.28)	1.82
가족수(명)	3.84 ( 0.89)	4.02 ( 1.03)	3.85 ***
남편의 직업만족도(점)	18.39 ( 3.94)	17.63 ( 4.18)	-3.75 ***
수입 만족(점)	2.63 ( 0.86)	2.56 ( 0.87)	-1.62
직업안정성 만족(점)	3.33 ( 1.01)	3.11 ( 1.05)	-4.23 ***
근무시간 만족(점)	3.06 ( 1.02)	2.97 ( 0.99)	-1.95
업무내용 만족(점)	3.15 ( 0.90)	3.02 ( 0.91)	-2.85 **
근무환경 만족(점)	3.10 ( 0.97)	3.03 ( 0.96)	-1.63
장래성 만족(점)	3.10 ( 1.03)	2.94 ( 1.00)	-3.23 **
남편의 근무년수(년)	8.49 ( 6.77)	9.23 ( 8.35)	1.94
남편의 근무시간(시간)	61.87 ( 14.88)	63.49 ( 15.64)	1.66
남편의 공식휴가 종류(수)	2.45 ( 1.18)	2.00 ( 1.17)	-7.65 ***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표 4〉 가족휴가 결정에 대한 Probit 분석결과

(N =1,616)

변 수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u>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u>		
남편 교육수준	-0.137	0.072
남편의 건강상태 인식	-0.176	0.137
부인의 연령	0.027	0.029
부인 교육수준	-0.056	0.069
부인의 건강상태 인식	0.049	0.146
부인의 경제상태 인식	0.082	0.152
부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0.144	0.151
가계근로소득	-0.003	0.0002
가계비근로소득	-0.005 *	0.0002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	0.470	0.721
자녀유무 : 6세이하	-0.021	0.350
7-18세	-0.011	0.337
19세이상	0.732	0.406
가족수	-0.118	0.311
부모동거여부	-0.151	0.519
자동차 소유여부	0.573 *	0.247
거주지역	-0.144	0.229
<u>직업관련 변수</u>		
남편의 직업만족	0.017	0.029
남편의 근무년수	-0.018	0.021
남편의 근무시간	0.004	0.008
남편의 공식휴가 종류	0.297 **	0.102
부인의 취업여부	0.622	0.438
Constant	2.663	
Log Likelihood $\chi^2$	-241.918***	

\* p < 0.05, \*\* p < 0.01, \*\*\* p < 0.001

화되어 있는 반면 이미 자산소득이 축적되어 가계비근로소득이 많은 중장년층 이후의 가족은 자녀의 성장이나 가족수의 감소로 가족단위의 휴가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족휴가를 가는 경향은 자동차로 인한 기동성이 휴가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휴가를 이용한 숙박여행의 경우 자가용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난 김진탁(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직업관련 요인 중에서는 가구주의 공식휴가

종류가 가족휴가 결정에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공식휴가의 종류가 많을수록 가족휴가를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공식휴가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가족휴가를 갖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 유사한 결과이다.

### 3. 가족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휴가일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 보기 위해 Tob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개인 및 가구관련 요인중 부인의 경제상태 인식, 가계근

〈표 5〉 가족휴가일수에 대한 Tobit 분석결과

(N = 1,616)

변 수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u>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u>		
남편 교육수준	0.063	0.101
남편의 건강상태 인식	-0.187	0.203
부인의 연령	-0.036	0.045
부인 교육수준	-0.025	0.094
부인의 건강상태 인식	-0.057	0.206
부인의 경제상태 인식	0.573 **	0.208
부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0.026	0.224
가계근로소득	0.0006 *	0.0002
가계비근로소득	0.0002	0.0002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	2.673 *	1.101
자녀유무: 6세이하	-0.764	0.450
7-18세	-0.748	0.448
19세이상	-0.113	0.598
가족수	0.768	0.401
부모동거여부	0.844	0.721
자동차 소유여부	0.909 **	0.345
거주지역	-0.059	0.324
<u>직업관련 변수</u>		
남편의 직업만족	0.039	0.042
남편의 근무년수	-0.039	0.033
남편의 근무시간	0.005	0.012
남편의 공식휴가 종류	0.202	0.145
부인의 취업여부	0.711	0.512
Constant	-2.389	
Log Likelihood $\chi^2$	-597.058***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로소득,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 자동차 소유여부 등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인이 경제상태에 대해 만족할수록, 가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일 때 가족휴가일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직업관련 요인 중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정적 영향력은 많은 연구에서 소득이 개인의 여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 지적된 것(홍성희, 1991)이나 소득이 가족의 여가일

수와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장병권(198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소득은 여가활동선택시 개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는 지표인 동시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변수로서 여가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홍성희, 1991). 그러므로 소득은 가족의 휴가활동에도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여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가족휴가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소득의 객관적 상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주관적 상태를 반영하는 부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만족할수록 가족휴가

일수가 증가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일수록 휴가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족휴가일수가 많아지는 것은 가계총지출에서 차지하는 가족휴가비의 지출이 점차 증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가족휴가를 위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이동사회로의 변화가 여가활동의 수용력을 신속하게 대중화할 것이라는 김광득(1994)의 연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족휴가일수에는 주관적 복지감을 나타내는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가계근로소득,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과 같은 경제관련 변수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가족휴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휴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Tob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인 및 가구관련 요인중 가족휴가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부의 교육수준, 가계근로소득,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 거주지역 등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일 때 휴가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교육수준이 가족휴가비용과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부인의 교육수준이 가족휴가비용과 부적 관계를 보인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서, 남편의 교육수준이 가족의 여행비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장병권(1987)의 연구결과나 교육수준은 여가활동 참여 뿐 아니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기호의 범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Parker(1976)의 견해를 지지하지만,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경향은 선행연구와 상반된 것으로서, 교육수준뿐 아니라 연령, 생활주기 등의 기타변수와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계근로소득과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의 변수들은 이들이 가족휴가일수에 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가족휴가비용을 위한 지출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대도시 거주가가 휴가를 이용해 도시를 떠나 자연이나 관광지를 찾는 성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도시인들이 실내에서 정적인 자세로 하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산이나 자연에서 행하는 여가활동을 선호한다는 Burch(1969)의 견해나 지역규모별로 대도시민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거주자에 비해 휴가를 일상생활로 부터 탈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신정화 등(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직업관련 요인에는 남편의 직업만족, 남편의 근무년수, 남편의 근무시간, 남편의 공식휴가 종류, 부인의 취업여부를 포함시켰으나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 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 및 직업관련 변수외에 포함된 가족휴가일수 변수는 가족휴가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는데, 즉 가족휴가기간이 길수록 휴가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족휴가비용에는 개인 변수, 가구관련 변수, 직업관련 변수들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족휴가 의사결정을 휴가여부, 휴가일수 및 휴가비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휴가특성에 대한 결정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가족휴가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가족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와 직업관련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가족휴가 결정에는 가계비근로소득과 자동차 소유여부, 가구주의 공식휴가의 종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인의 경제상태인식, 가계근로소득,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 자동차 소유여부 등이었으며, 부인이 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가계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총지

〈표 6〉 가족휴가비용에 대한 Tobit 분석결과

(N =1,616)

변 수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u>개인 및 가구관련 변수</u>		
남편 교육수준	0.966 *	0.491
남편의 건강상태 인식	0.195	0.984
부인의 연령	0.345	0.221
부인 교육수준	-0.934 *	0.471
부인의 건강상태 인식	0.050	1.019
부인의 경제상태 인식	1.128	1.060
부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0.387	1.099
가계근로소득	0.005 ***	0.001
가계비근로소득	0.0007	0.001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	21.318 ***	5.506
자녀유무: 6세이하	-0.047	2.284
7-18세	-3.203	2.251
19세이상	-5.146	2.834
가족수	0.980	2.033
부모동거여부	3.904	3.624
자동차 소유여부	0.083	1.733
거주지역	4.384 **	1.617
<u>직업관련 변수</u>		
남편의 직업만족	-0.113	0.211
남편의 근무년수	-0.162	0.161
남편의 근무시간	-0.012	0.059
남편의 공식휴가 종류	0.860	0.278
부인의 취업여부	0.622	2.598
가족휴가일수	0.906 **	0.278
Constant	-21.274	
Log Likelihood $\chi^2$	-1012.942***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출 대 가계총소득이 높을수록, 자동차 소유 가구일 때 휴가일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휴가비용은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총지출 대 총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일 때, 가족휴가일수가 길수록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로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휴가가 일에서 떠나 휴식

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수반되는 스트레스나 갈등 등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기능은 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중에서도 가계의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 가계총지출 대 가계총소득, 자동차 소유여부, 경제상태인식 등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경제력과 관련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을 볼 때,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이 가족휴가를 즐기기 위한 자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여가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여가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여가활동에서 소외되는 가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변수중에서 가계비근로소득이 휴가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근로소득이 가정생활주기의 진전이나 연령증가에 따라 축적되는 것이므로 가정생활주기의 단계별 비교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인의 교육수준도 남편의 교육수준과 달리 휴가비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육수준과 연령, 또는 가족생활주기와와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직업관련변수에 있어서는 가구주의 공식휴가의 종류가 가족휴가 의사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업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직종에 따른 휴가의사결정에 차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가족휴가의 일수와 비용 등에 대한 기초자료는 가족원의 생활시간 및 생활비등 자원을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휴가시간 및 휴가비용을 계획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회기구 및 시설, 기업 등에 가족의 휴가활동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가족이 요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휴가를 다녀왔던 가구 중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와 같이 젊은 부부들이 휴가에 대한 욕구가 크고 이들의 휴가가 가족중심형의 경향을 띠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휴가 중 타아를 겸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휴가시설 내에 타아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합형 시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식휴가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는 봉급생활자 가구의 휴가일수에 적합한 휴가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도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가족휴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정학 분야에서 주부를 중심으로 개인의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연구의 방향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봉급생활자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에 따른 가족휴가의 차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시켜 다른 직종을 포함시킴으로써 직종에 따른 휴가패턴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고려했던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와 직업관련변수 이외에 휴가 의사결정시 심리적인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휴가동기나 휴가에 대한 인식 등의 변수를 포함시킨다면 휴가결정에 관한 예측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가족휴가 의사결정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나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휴가선택단계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이전의 정보탐색,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 등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시도된다면, 가족휴가 의사결정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국토개발연구원(1988), “휴양/ 위락행태의 변화 및 공간확보 방안연구”,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 2) 권미화(1994), “미혼 신세대 소비자의 여가선호에 관한 연구 -여가활동과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3)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 -이론과 실제-, 서울 : 백산출판사.
- 4) 김진탁(1993), “국민관광 recreation 동태와 관광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 특히 대구직할시민을 대상으로 -”, 관광학연구, 17, 109-128.
- 5) 김의숙 · 이기영 · 최은숙(1992), 가족자원관리,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6) 김의숙(1993),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장애지각과 여가활동참여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2), 208-218.

- 7) 신정화 · 문창희(1993), “국민관광에 대한소고 -하계휴가를 중심으로 -”, 부산전문대학논문집, 16, 81-92.
- 8) 안중수 · 김성섭(1993), “가족생활주기에 나타나는 관광행동의 특징”, *관광학 연구*, 17, 183-193.
- 9) 장병권(1987), “서울시 거주 가족의 여행의사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0)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5),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한국관광공사.
- 11)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2)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2), 71-84.
- 13) Reich, R. B.(1994), *Report on the American Workforce* : U. S. Department of Labor. Washington, DC.
- 14) Burch, W. R.(1969), “The Social Circles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140-152.
- 15) Davis, H. L. & Rigaux, B. P.(1974), “Perception of Marital Roles in Decis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51-62.
- 16) Filiatrault, P. & Ritchie, J. R. B.(1980), “Joint Purchasing Decisions : A Comparison of Influence Structure in Family and Couple Decision Making Unit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7, 131-140.
- 17) Francken, D. A. & Raiij, W. F.(1984), “Vacation Decision, Activities and Satisfa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1(1), 337-352.
- 18) Lawson, R.(1991), “Patterns of Tourist Expenditure and Types of Vacation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Spring, 12-18.
- 19) Lounsbury, J. W. & Hoppers, L. L.(1985), “An Investigation of Associated with Vacation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1).
- 20) Nicols, C. M. & Senpenger, D. J.(1988) “Family Decision Making and Tourism Behavior and Attitud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6.
- 21) Parker, S.(1976),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New York : Pareger.
- 22) Roberts, K.(1970), *Leisure*, London : Longman.
- 23) Rubenstein, C.(1980), “Vacations : Expectations, Satisfactions, Frustrations, Fantasies”, *Psychology Today*, (14), 62-66.
- 24) Wahlers, R. G. & Etzel, M. J.(1985), “Vacation Preference as a Manifestation of Optimal Stimulation and Lifestyle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4).